

# KT·LG·SK 주요 IPTV 3사, TV채널 사업 경쟁 '치열'

프로그램 자체 제작 및 외부 드라마·예능 스튜디오 등  
협업 통해 강화해... "중소 PP와 공동제작도 기획 중"

주요 IPTV 3사의 TV채널 사업 경쟁이 치열하다.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IPTV 3사가 지난해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프로그램 자체 제작과 외부 드라마·예능 스튜디오·채널과의 협업을 통해 전후적으로 PP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규모에 걸맞게 이들이 각각 보유한 미디어 로고(LG유플러스, skyTV(KT), 미디어에스(SK브로드밴드)는 모두 여러 채널을 보유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다.

가장 먼저 경쟁에 불을 지핀 곳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미디어로고를 통해 지난해 7월 채널 '더라이프'를 론칭한 데 이어 12월 '더드라마' 채널의 방송을 시작했다.

더드라마는 80~90년대 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백가야' 시리즈 프리퀀(본편의 과거 이야기)인 '백가야 리턴즈'를 국내 최초로 TV방영했고, 최근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 골프선수 박세리와 '내일은 영웅'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에 질세라 KT스카이라이프의 PP인 'skyTV'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동 제작·편성을 통해 영향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채널A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선보인 스타 부부 예능 '애로부부'를 시작으로 현재 '수미산장'(KBS), '강철부대'(채널A), '와일드 와일드 퀴즈'(MBN) 등을 보유 채널인 'SKY'와 'NQ'에서 인기리에 방송하고 있다.

이에 앞서 skyTV는 제작 강화를 위해 '스튜디오 디스커버리'를 설립했다. 스튜디오 디스커버리는 미디어 그룹 디스커버리가 아시아에 최초로 설립한 콘텐츠 전문 제작사로 스카이라이프가 30%, 디스커버리 아시아가 70%의 지분을 투자했다. SBS 예능국장 출신 정순영 PD를 제작총괄로 영입하는 등 국내 대표 예능 PD들을 대거 스카웃했다.

SK브로드밴드는 가장 늦게 PP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운영은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미디어에스를 1월 통해 지난 8월 채널 '채널S'와 '채널S 동네방네' 정규 방송을 시작했다.

채널S는 개국과 동시에 전체 프로그램 중

70%를 독점 콘텐츠로 편성했다.

특히 SM 산하 매니지먼트·제작사 SM C&C와 손잡고 자체 제작 예능 콘텐츠를 공개했다. 현재 대한민국 대표 예능 MC 강호동과 신동엽을 앞세워 '잡동산'과 '신과 함께'를 방송하고 있다. SM C&C에는 강호동·신동엽 외에도 방송인 전현무, 이수근, 배우 김수호, 황신혜 등이 소속돼 있다.

또 채널S는 카카오펀터테인먼트와 콘텐츠 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카카오펀터(자체 제작)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다. 카카오펀터 인기 콘텐츠 '맛집의 옆집', '개미는 오늘도 똘똘', '찐경규', '머느라기' 등을 독점으로 유료방송 채널로는 독점으로 방영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볼 만한 채널과 프로그램이 늘어나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다만 PP업계는 대형 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콘텐츠 사업 생태계 확산, 투자 활성화를 기대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사용료와 채널 개편을 둘러싼 갈등, 대형 사업자 쏠림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는 채널S의 방송을 시작하며 채널 번호를 1번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번이었던 SBS플러스는 28번으로, 28번이었던 MBC에브리원도 990번으로 밀려났다. NQQ는 olleh tv의 0번에 배치돼 있다.



또 PP업계는 IPTV 3사가 서로 프로그램 사용료와 좋은 채널 번호를 몰아주거나 맞교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IPTV 3사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PP의 콘텐츠 경쟁력을 올리고 접근성이 높은 앞번호 채널을 활용할 경우 중소 PP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SK브로드밴드 측은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상생을 위해 전문성 있는 중소 PP와 공동제작도 기획 중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 시장 파이를 키우고 산업의 선순환 구조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뉴스스

NOMINEE	TOP CHOICE	ODDS
1 Yuh-Jung Youn Minari	4563	16/5 ↑
2 Maria Bakalova Borat Subsequent Moviefilm	587	4/1 ↓
3 Glenn Close Hillbilly Elegy	415	4/1 ↑
4 Olivia Colman The Father	165	9/2 ↑
5 Amanda Seyfried Mank	188	9/2 ↓

## 윤여정, 오스카 여우조연상 예측 투표 압도적 1위

미국 할리우드 '골드더비' 분석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윤여정이 수상 여부 예측 투표에서 다른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할리우드의 시상식 예측 전문 사이트 '골드더비'에 따르면 윤여정은 전문가와 편집자, 일반 회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아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윤여정은 전체 4563표를 얻어 2위인 영화 '보랏 서브시퀀트 무비필름'의 마리아 바칼로바(587표)를 압도적 표 차이로 제쳤다.

전문가 중에서는 27명 중 24명의 선택을 받았다.

골드더비 편집자 11명과 지난해 오스카상을 정확히 예측한 '톱 24' 회원,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아카데미상 예상 정확도가 높았던 '올스타 톱 24' 회원으로부터는 몰표를 가져갔다.

골드더비는 "윤여정이 여우조연상 경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화 '사야나라'(1957)의 우메키 미요시 이후 두번째 아시

안 배우 수상자가 나올 것이라 전망했다.

'미나리'는 여우조연상뿐 아니라 오스카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 부문에서는 노매드랜드에 이어 예측 2위다.

작품·각본·음악상 부문은 3위를 기록했고,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연은 남우주연상 부문에서 4위에 올랐다.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 한국 영화 102년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는 한국 배우라는 기록을 쓰게 된다.

올해 74세인 윤여정이 트로피를 안게 될 경우 이 부문에서 세번째로 나이 많은 수상자가 된다.

윤여정은 지난 13일(한국 시각) 아카데미 시상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LA에 체류 중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시간으로 25일 오후 5시(서부시간 기준),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9시 ABC 방송을 통해 전 세계 225개 나라에서 생중계된다.

## '권해효·박하선'...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 선정

29일 개막...다음달 8일까지 10일간 개최

개막작은 세르비아 영화 '아버지의 길'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권해효와 박하선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배우는 오는 29일 오후 7시 한국전통문화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개막식 사회를 맡는다.

권해효는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2020)



와 장물 감독의 '후쿠오카'(2019)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이사로 위촉된 바 있다.

영화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 '박하선의 씨네타운'의 진행자로 활약하며 최근 영화 '고백'(2020)으로 스크린에 복귀한 박하선 역시

전주와 인연이 있다.

워킹맘을 연기한 박하선의 주연작 '첫번째 아이'가 올해 한국경제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개막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승수 조직위원장과 조직위 관계자, 심사위원, 경쟁작 감독 등 최소 인원만 참여한다.

개막식에 참석하는 게스트들의 소규모 레드 카펫과 포토월 행사, 그리고 식순에 준한 개막선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약단광칠'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한병아 감독이 연출한 올해 영화제 트레일러에 삽입된 '노자노자'를 비롯해 총 세 곡의 무대가 준비돼 있다.

개막식 전 과정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jiffmedia>)을 통해 전 세계 영화 관계자와 관객들 앞에 공개된다.

개막식 이후에는 세르비아의 스타단 고르비비치 감독이 연출한 개막작 '아버지의 길'이 상영된다. 이 영화는 가난하고 힘없는 가정이 가족을 되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통해 위선적인 사회와 보여주는식 행정이 만들어낸 어수선한 사회 안전망의 맹점을 지적하며 베를린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호평받았다.

한편 올해 영화제는 '영화는 계속된다(Film Goes On)'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10일간 전북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총 48개국, 186편(장편 116편·단편 70편)이 영화 마니아들을 만난다.

## '트롯 전국체전' 전국투어콘서트 다음달 17일 티켓 오픈

송가인·진혜성 포함 톱8·신미래 참여

'트롯 전국체전' 전국투어콘서트가 티켓 오픈을 시작한다.

21일 '트롯 전국체전'은 "송가인과 진혜성을 포함한 톱8 그리고 신미래가 참여하는 '트롯 전국체전' 전국투어콘서트는 오는 5월 17일 티켓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미 수만 명이 콘서트 예약 대기 상대라고 알려졌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7월 10, 11일 서울 KSPO 돔 올림픽 체조경기장 그리고 7월 17, 18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에서 각 지역 양일간 개최된다.

추후 일정과 장소는 코로나19 상황 고려 및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비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송가인은 '트롯 전국체전'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 광주 지역에 합류한다.



## '멀티태이너' 비비, 2년만에 컴백... '배드 새드 앤드 매드'



가수 비비가 새로운 콘셉트로 돌아온다. 21일 소속사 필굿뮤직에 따르면 비비는 오는 28일 새 EP 앨범을 발표한다.

스스로 작사, 작곡, 스타일링 등 앨범 전반에 걸쳐 콘셉트 기획을 도맡은 스토리텔링 시리즈 앨범이다. 비비의 멀티태이너 성격이 짙게 드러난다.

티저를 통해 신곡의 일부도 공개됐다. 20일 오후 공개된 신곡 '배드 새드 앤드 매드' 티저

속 비비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배경으로 눈빛을 쏟아내며 정면을 응시하는 등 깊은 인상을 남겼다.

비비가 앨범 단위의 신보를 공개하는 건 2019년 6월 발매한 EP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점서'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오랜만에 발표하는 새 앨범을 통해 자신의 독특한 세계관을 음악, 글, 영상 다방면에 걸쳐 선보일 계획이다.

## 슈퍼주니어 예성, 다음달 3일 솔로 컴백

미니 4집 발매

그룹 '슈퍼주니어'의 예성이 1년11개월 만에 솔로로 컴백한다.

21일 레이블 SJ에 따르면 예성은 오는 5월 3일 미니 4집을 발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 오후 6시에는 유튜브 및 네이버TV, 브이 라이브(V LIVE) SMTOWN 채널을 통해 새 앨범 수록곡 '팬텀 페인(Phantom Pain)' 뮤직비디오를 선공개하며 본격적인 컴백 예열에 나선다.

앞서 예성은 지난 2016년 4월 첫 솔로 미니앨범 '히어 아이 엠(Here I am)'을 발표하고, 미니 2집 '스프링 폴링(Spring Falling)', 미니 3집 '핑크 매직(Pink



Magic) 등 발라드, 포크, 팝까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예성의 미니 4집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각종 온·오프라인 음반 매장에서 예약 구매할 수 있다.

뉴스스